

윤리와 사상 정답

1	②	2	④	3	③	4	③	5	②
6	⑤	7	③	8	①	9	①	10	④
11	⑤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③	18	④	19	④	20	①

해설

1.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가상 인터뷰의 사상가는 장자이다. 그는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만물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상대적 인식과 외물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자연의 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스토아학과와 에피쿠로스학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스토아학파의 아우렐리우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스토아학파에서는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하여 몸이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순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예(禮)는 성인이 제정하였으며, 인간의 악한 본성은 예를 통해 교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아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한편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주지주의의 입장에서 무지가 악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하였다. 또한 팔정도 수행을 통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고통의 원인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플라톤이다. 그는 선의 이데아에 대한 참된 앎을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통치자가 지혜의 덕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절제의 덕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혼의 세 부분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파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지눌은 단박에 깨친 뒤에도 나쁜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정혜쌍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습기(習氣)를 점진적으로 소멸시켜 나가는 정혜쌍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8.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그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기 때문에 군주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王道) 정치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군주가 인의(仁義)를 해쳐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9. [출제의도] 왕수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왕수인이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라고 보고, 천리로서의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였다.

10.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는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쾌락의 양적인 차이만 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밀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모두 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쾌락이라고 보고,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로스와 칸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로스, 을은 칸트이다. 로스는 칸트의 의무론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의무들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다. 한편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의무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보았다. 또한 이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며, 도덕 법칙은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지전능한 신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주장하며, 신의 존재를 이성에 의해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신앙을 통해 신에게 귀의하고, 신의 은총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될 때 내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이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이이이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오직 기이고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황은 사단이 이가 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그는 신은 곧 자연이며,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우주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과 질서를 인식함으로써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위정척사 사상과 동학사상 비교하기

같은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 을은 동학사상가 최시형이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를 지키고, 서양과 일본의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학사상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차별적인 신분 질서를 반대하였다.

16. [출제의도]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비교하기

(가)는 중관 사상, (나)는 유식 사상이다. 중관 사상에서는 연기(緣起)에 의해 생겨난 것들은 고정불변하는 자성(自性)을 지니지 않으므로 공(空)하다고 본다. 유식 사상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17.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지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이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감정과 행위에 중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흄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흄이다. 흄은 행위에 대한 선악의 구분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성의 기초인 공감 능력을 통해 사회적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주희와 정약용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주희, 을은 정약용이다. 주희는 인간의 본성[性]을 하늘이 부여한 이치[理]라고 보았다. 정약용은 인간만이 본성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성을 타고났으며, 사단(四端)을 확충함으로써 사덕(四德)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법률이나 형벌보다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해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하였다. 노자는 인간의 그릇된 인식과 가치관에서 사회 혼란이 비롯되었다고 보았고,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무위(無爲)의 통치를 주장하였다.